

제주도 방언의 담화표지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김미진

| 제주대학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제주도 방언의 담화표지를 사회언어학적으로 연구하여 제주도 방언 화자의 언어 습관에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주도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20대 대학생과 실제 제주도 방언을 구사하는 80대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녹음·전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담화표지 사용의 차이를 계량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20대 화자는 80대 화자에 비해 표준어형과 축약형을 즐겨 사용한다. 이러한 20대의 언어습관이 담화표지 사용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또한 남성 화자가 더 많은 담화표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머뭇거리고, 머릿속에서 정리하여 말하려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품사적 기원에 바탕을 둔 담화표지의 형태적 분류에서 부사성 담화표지와 감탄사성 담화표지를 20대 남성 화자가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남성의 발화가 점차 여성적 말하기의 경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접속부사성 담화표지에서 20대 화자는 표준어형과 방언형을 혼합한 형태의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핵심어: 제주도 방언, 담화표지, 사회언어학, 언어 습관, 담화 책략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1914)

1. 서론

담화표지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화자가 습관적으로 혹은 시간을 벌기 위해 첨가하는 형태의 것을 의미한다. 글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주로 구어 담화 상황에서 사용된다. 말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구어체 발화를 원활하게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통사적으로 독립적이고 특별한 문법적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담화의 본래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담화표지는 통사적 단위는 아니지만 발화를 구분하는 하나의 표지어로 다른 정보 또는 다른 발화를 제시하고자 할 때 화자가 전략적으로 쓰는 언어적 장치다.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거나 문법적 기능을 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담화상에서 실현되었다면 그 담화표지는 반드시 어떤 독특한 담화적 기능을 수행한다. 말을 시작할 때, 얼버무릴 때, 대답할 때,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말이나 상대방의 말을 수정할 때, 머뭇거릴 때,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을 때 등 대화에서 특별한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담화 상황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 연구는 제주도 방언의 담화표지를 사회언어학적으로 연구하여 제주도 방언화자의 언어습관에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실제 제주도 방언 화자들은 어떤 형태로 담화표지를 사용하는지 조사·분석하여 나이, 성별, 교육의 정도에 따라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품사적 기원에 따라 형태적으로 구분하여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2. 연구 방법과 선행연구 검토

2.1. 연구 방법

방언은 구어를 통해 전승된다. 문자화된 언어에서는 찾기 힘든 구어만의 특

징 중 하나인 담화표지는 의사소통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구술 발화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자와 정리자의 주관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인식되면 생략되기도 한다. 따라서 담화표지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조사 정리된 것이 아니면 자료로서 부적합하다. 지금까지 연구되었던 자료들이 모두 이미 전사된 자료를 통해 연구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구어체 속의 담화표지를 연구하기 위해 새로운 자료 조사는 필수적이다.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는 실제 발화 과정 속에서 가공되지 않은 언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글 속에 존재하는 언어 연구가 아니라 실생활의 언어를 대상으로 분석해야만 대화 상황 속에서 사용되는 담화표지의 특징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제주도 방언의 실제 담화를 녹음하여 상황에 따른 담화표지의 기능을 확인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나이와 성별, 교육의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담화표지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피조사자는 제주도 방언을 구사하는 제주 출신 80대 이상의 남성 6명, 여성 6명, 제주도 출신인 20대 대학생 남성 6명, 여성 6명 총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¹⁾

이름	출생연도	주소지	학력	성별	조사 시간 (분:초)	비고
김○○	1999	서귀포시 동홍동	대제	남	11:02	
안○○	1998	제주시 이도일동	대제	남	11:21	
양○○	1998	서귀포시 서홍동	대제	남	10:10	
원○○	1999	서귀포시 동홍동	대제	남	10:43	
한○○	1999	조천읍 함덕리	대제	남	10:50	
한○○	1999	제주시 건입동	대제	남	11:40	
					1:05:46	
강○○	1996	제주시 일도동	대제	여	10:50	
강○○	1998	제주시 아라동	대제	여	10:20	

- 1) 조사 대상을 80대와 20대로 나눈 것은 방언 사용 연령층과 표준어 사용 연령층의 차이를 확실히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 방언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방언을 주로 사용하는 80대 이상의 연령층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상반적인 특징을 보일 수 있는 연령층으로 20대를 선정하였다. 20대는 학교 교육과 텔레비전의 영향으로 표준어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 연령층이다.

고○○	1998	제주시 삼양동	대재	여	11:00	
고○○	1996	제주시 아라동	대재	여	11:00	
이○○	1999	안덕면 화순리	대재	여	10:30	
한○○	1998	제주시 용담동	대재	여	11:18	
					1:04:58	

<표 1> 20대 피조사자 명단

이름	출생 연도	주소지	학력	성별	조사 시간 (분:초)	비고
고○○	1934	한경면 금등리	무학	남	11:40	
고○○	1935	성산읍 삼달리	무학	남	11:40	
김○○	1933	조천읍 신촌리	무학	남	12:08	
김○○	1935	구좌읍 송당리	무학	남	12:05	
오○○	1934	남원읍 태흥리	무학	남	11:30	
정○○	1937	대정읍 동일리	무학	남	12:05	
					1:11:08	
김○○	1929	성산읍 삼달리	무학	여	11:57	
손○○	1931	애월읍 신엄리	무학	여	11:32	
오○○	1932	남원읍 태흥리	무학	여	11:20	
정○○	1928	대정읍 인성리	무학	여	10:50	
조○○	1930	조천읍 선흘리	무학	여	11:35	
한○○	1930	조천읍 함덕리	무학	여	12:00	
					1:09:14	

<표 2> 80대 피조사자 명단

피조사자가 한정적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남녀의 차이와 나이, 교육의 정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추후 더 많은 대상으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조사는 면접 조사를 통해 10분 정도의 자연 발화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80대 이상의 노년층에게는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물었으나 잘 모르거나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결혼할 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또 한 20대 청년층에게는 최근에 본 영화나 책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조사된 자료에서 사용된 담화표지를 분류함에 있어 담화표지의 품사적 기원에 근거하였다. 원래 부사, 접속부사, 지시대명사, 의문대명사, 조사, 감탄사였던 것이 담화상황 속에서 문법적 기능을 상실하고 담화표지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자료에서 추출한 담화표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부사성 담화표지: 막, 이제, 되게, 그냥, 약간, 조금, 다시

접속부사성 담화표지: 그리고, 그래서, 또, 해서, 했는데, 근데, 그니까, 게고, 게도, 게서, 경허난, 경허멍, 경헤영, 게가지고, 게니까

지시대명사성 담화표지: 이, 그, 저, 그런, 거시기

의문사성 담화표지: 뭐, 왜, 어디, 무슨, 무신거

조사성 담화표지: 요, 게, 양, 이, 마씨

감탄사성 담화표지: 아, 어, 에, 찜, 아니, 음, 윈, 아이구

2.2. 선행 연구 검토

담화표지는 전통적인 언어 연구에서 군말이나 머뭇거림 등 부정적 표현으로 지칭되었고 이러한 표현들은 실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던 담화표지가 담화상에서 새로운 기능을 갖는 긍정적인 의미로 부각되었다. 감탄사, 접속부사 중 일부가 문장 층위의 문법적 규칙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담화 층위에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감탄사, 부사, 구절 등 여러 형식의 담화표지가 사용되며, 축약 및 변이가 일어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담화표지는 문장의 다양한 위치에서 나타나며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일반 부사의 경우에는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데 반해 담화표지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다른 성분과 통사적 관계를 맺지 않고 생략 가능성이 높아 독립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원래의 어휘 의미를 상실하였거나 원래 의미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담화표지는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실현되기도 한다.

담화표지는 상대방에게 화자의 발화 의도나 심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담화 책략의 하나이다. 특히 담화의 구조를 형성하고 조직하며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략적인 특성이 강조되는 언어 요소라 할 수 있다. 즉 대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어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한다.

이러한 담화표지에 대한 선행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담화표지 전반에 걸친 연구로 의미, 특징, 기능을 바탕으로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정애(1998), 전영옥(2002)의 담화표지의 정의와 분류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둘째, 개별 담화표지에 관한 것으로 ‘글쎄, 이제, 그래, 거시기, 뭐, 막. 그냥’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와 사용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주로 전통적 통사범주에서 담화표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해영(1994)을 시작으로 김영철(2010) 등이 있다.

셋째, 한국어 교육 관련 담화표지 연구이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개별 담화표지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국어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많았다면, 2000년대부터는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수모형을 만드는 등 교육 방법의 연구로 이어졌다. 안주호(1992), 심란희(2011) 외에 다수의 연구가 있다.

넷째, 지역 방언에서의 담화표지 연구이다. 담화표지의 여러 가지 기능을 분석하면서 지역 방언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함경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방언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기갑(2009), 임규홍(2011) 등이 대표적이다.

제주도 방언의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는 방언 관련 논문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 문순덕(2003)에서 반말체 첨사 ‘-계, -이, -기’에 대해, 문순덕(2005a)에서 높임말 첨사 ‘-마썸, -양, -예’의 담화 기능에 대해 연구되었고, 양창용(2009)이 ‘-양, 문순덕·김원보(2012)가 ‘계메’, 양창용·김원보(2013)가 ‘-계’를 담화

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중에서 문순덕(2005a)은 제주도 방언의 ‘-양, -에, -마씀’의 사용 빈도를 나이, 성별에 따라 구분하기도 했다. ‘마씀’은 성별에 관계없이 두루 사용되며 ‘양’은 남성의 발화 빈도가 높고 ‘에’는 주로 여성들이 사용한다고 했다.

김미진(2015)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여성 발화에서 담화표지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제주도 방언을 사용하는 75세 이상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담화표지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담화표지 사용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많은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담화 진행에서 유창하기 때문으로 평가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담화진행에서 더 많이 머뭇거리고 그 머뭇거림을 채우기 위해 담화표지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편이며 남성은 머릿속에서 정리하여 말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주도 방언의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는 개별 담화표지에 대해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사용 양상을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3. 제주도 방언의 담화표지의 특징

3.1. 사회적 변인에 따른 특징

3.1.1. 나이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나이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진다. 젊은 세대일수록 방언형보다는 표준어형을 많이 사용하며, 줄임말을 즐겨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 방언 화자의 경우도 청년층과 노년층의 언어가 다르

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담화표지 형태 면에서 표준어형과 방언형의 사용 정도가 다를 것이다. 이에 나이가 다른 두 집단의 언어를 비교하여 차이를 알아보았다. 제주도에서 출생하여 제주도에서 성장한 20대 집단과 실제 제주도 방언을 구사하는 80대 집단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각 세대별 담화표지 사용 양상을 조사 분석하였다.

20대는 표준어에 익숙하며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방언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표준어 생활권의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담화표지 역시 방언형보다는 표준어형을 더 많이 사용한다.

담화표지 종류	세대	80대	20대
	부사성		94
접속부사성		95	122
지시대명사성		169	148
의문대명사성		47	47
조사성		73	2
감탄사성		33	120
합계		511	647

<표 3> 세대별 담화표지 사용 빈도

담화표지 종류별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80대가 511회, 20대가 647회로 20대가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0대는 지시대명사성 담화표지 169회, 접속부사성 담화표지 95회, 부사성 담화표지 94회, 조사성 담화표지 73회, 의문대명사성 47회, 감탄사성 33회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부사성 208회, 지시대명사성 148회, 접속부사성 122회, 감탄사성 120회, 조사성 2회 순으로 나타났다. 80대는 지시대명사성 담화표지와 조사성 담화표지의 사용이 많았다. 또한 20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담화표지는 부사성과 감탄사성 담화표지이다.

(1) 가. ㄱ: 우신 멧 사름이나 갑니까?

ㄴ: 두 사름마썌. 외갓집에서 훈 사름허곡 성펜에서 훈 사름허곡 경 갑주
게. (80대 남, ㄱ○○)

나. 막 되게 무서웠어요 막, 어제 친구 막, 옆에, 옆에 앉은 아이 막, 막, 손
막, 팔목 막 잡으면서 봤거든요.(남 20대, ㄴ○○)

20대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조사성 담화표지는 80대에서 많이 나타난다. (1. 가.)에서 ‘-마썌’나 ‘-게’는 제주도 방언에서 침사로 분류되는데 20대의 발화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1. 나.)은 공포영화를 보고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20대 남자의 발화이다. 아주 무서웠으며 옆에 앉은 아이의 팔목을 마구 잡으면서 보았다는 내용이다. ‘막’은 부사로 제주도 방언의 의미인 ‘아주’와 표준어 ‘마구’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그 이외의 의미가 없는 ‘막’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담화표지로서의 ‘막’은 뒤에 나오는 명사나 용언을 수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뒤의 말을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막’ 다음에 휴지를 두어 말한다. 부사로 사용된 ‘막’의 경우는 그 앞에 휴지를 두어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해 주는 반면 담화표지로 사용될 경우는 ‘막’ 다음에 휴지를 두며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지 않는다.

나이에 따른 담화표지 사용 빈도는 80대보다 20대가 더 높다. 80대의 발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조사 시간은 비슷하나 총 발화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담화표지의 양도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 사람에게 조사한 시간은 10분에서 12분이며 총 조사 시간은 20대 2시간 10분 44초, 80대가 2시간 20분 22초이다. 또한 같은 시간 동안에 즉흥적인 발화보다 논리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더 높은 20대가 더 많은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3.1.2. 교육

교육의 정도에 따라 언어의 사용 양상도 달라지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표준어 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방언보다는 표준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대학생인 20대가 교육을 받지 않은 80대보다 담화표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결과를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나이와 교육의 정도가 같은 수치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 두 요인이 변별적이지 않아 교육의 정도에 따른 차이를 뚜렷하게 찾을 수는 없었다. 즉 나이가 많은 80대는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20대는 대학생이다. 나이와 교육이라는 변인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교육을 받지 않은 80대는 방언형 담화표지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며 교육을 받은 20대는 방언형보다 표준어형의 담화표지를 더 많이 사용하리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20대의 담화표지 사용에서 표준어형과 방언형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혼합된 형태의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접속부사성 담화표지에서 ‘게가지고, 경हे가지고, 게니까’의 혼합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특이한 점이라 하겠다.

(2) 가. ㄱ: 인터넷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약간 영화 같은 느낌이 아니라 개인이
다큐멘터리 찍는, 찍는 것처럼.

나: 화면 자체도 그랬어?

ㄱ: 응, 경हे가지고, 경हे가지고, 어 약간 새로운 느낌 받았어요. 이렇게
도 연출할.(20대 남, 한○○)

나. 게가지고 아버지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아, 그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냈는데 하필 그 사고 당한 사람이
아버지.(20대 여, 강○○)

(2. 가, 나.)에서 나타나는 ‘경हे가지고’와 ‘게가지고’는 표준어형은 ‘그래가지

고'이고, 방언형으로는 '경해연', '겐'이다. 표준어형과 방언형 경계에서 두 개를 혼합한 형태가 나타난 것이다. 예문에서 보이는 '경해가지고, 게가지고'는 제주도 방언인 '경ㅎ-'와 줄임형인 '게-'가 '가지고'와 결합한 형태인 것이다.

교육을 받지 않은 80대보다 교육을 받은 20대에서 이러한 혼합 형태의 사용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표준어 교육을 받은 20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나 부모나 친구와 대화하는 사적인 자리에서는 방언으로 대화하기도 한다. 표준어를 주로 사용하기는 하나 방언의 영향으로 혼합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3.1.3. 성별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각각의 문화를 갖게 된다.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언어에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여성과 남성의 언어 비교 연구에 의하면 감탄사나 부사는 여성이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되었다.

담화표지 종류	성별	남	여
	부사성		145
접속부사성		102	115
지시대명사성		187	130
의문대명사성		58	36
조사성		49	26
감탄사성		98	55
합계		639	519

<표 4> 성별에 따른 담화표지 사용 빈도

<표 4>의 결과에서 남성 화자가 더 많은 담화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인 담화표지 사용 빈도는 적지만 부사성 담화표지와 접속부사성 담화표지는 여성 화자들이 남성 화자들에 비해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반면 남성

화자들은 지시대명사성 담화표지와 감탄사성 담화표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담화표지 사용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많은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담화 진행에서 유창하기 때문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담화 진행에서 더 많이 머뭇거리고 그 머뭇거림을 채우기 위해 담화표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김미진, 2015:52)이라고 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편이며 남성은 머릿속에서 정리하여 말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조사 자료를 통해서 남성이 더 많은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형태적 특징

담화표지는 구어 담화 상황에서 실현되며 동일한 형식이 문어 담화에서 실현 되더라도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른 의미로 나타나 기도 하고 기능이 달라지기도 한다. 담화표지 자체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미적 분류가 불가능하다. 담화표지의 품사적 기원을 중심으로 형태적 분류를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도 방언에서 나타나는 담화표지를 부사, 대명사, 감탄사, 조사에서 변화한 담화표지로 차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80대 남	80대 여	20대 남	20대 여
부사성	32	62	113	95
접속부사성	44	51	58	64
지시대명사성	98	71	89	59
의문대명사성	33	14	25	22
조사성	47	26	2	0
감탄사성	30	3	68	52
합계	284	227	355	292

<표 5> 형태에 따른 담화표지 사용 빈도

3.2.1. 부사성 담화표지

부사성 담화표지는 ‘이제, 그냥, 막, 좀, 아주’ 등의 부사가 담화표지로 기능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 방언 화자들이 사용하는 부사성 담화표지로는 ‘이제, 그자/기자, 좀/조금, 그냥/기냥, 막, 아주’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많은 부사를 사용한다. 용언을 설명하기 위하여 더 많은 부사를 사용하여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특징(김미진, 2015:35)이 여성 발화에서 나타난다. 또한 젊은 세대와 교육을 더 받은 쪽이 부사를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80대 남	80대 여	20대 남	20대 여
막	3	10	66	47
이제/이젠/인제	23	42	39	12
되게	0	0	0	5
그냥/그자/기자	5	6	3	3
약간	0	0	2	8
좀/조금	1	0	3	20
다시/따시/뜨시	0	4	0	0
합계	32	62	113	95

<표 6> 부사성 담화표지 사용 빈도

부사성 담화표지 사용 빈도는 교육을 받은 계층인 20대가 훨씬 많았다. 특히 20대 남성 화자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은 부사를 사용하여 좀더 실감나고 자세하게 말하려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남성스러움이 강조되는 말하기를 강요받았으나 점점 여성스러운 말하기를 선호하는 결과라 하겠다.

- (3) 가. 그 신부침에서 또 그렇게 노라미를 폐웠어. 그 도고리 농곡 행 거기서 인 젠 상객이라고 해서 가면은 우시엔 허주게.(80대 남, 정○○)
 나. 경혜연 그 시절에 그영허민. 저, 이제 우체국 어엽에가 절동산이엔 허어. 것ㄱㄹ.(80대 여, 정○○)
 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이게 이제 원래 도독질하는 사람 세 명이 있었는데

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잡화점 한 군데가 있어서 거기 털러 갔는데 거기서 뭘가 이제 편지통에 계속 편지가 들어오고 그거를 이제 고민 상담해 주면서 이제 뭘.(20대 남, 양○○)

라. 미성년자는 받지 말고 맛을 먼저 추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는데 계속 장가랑 쪼여서 아직 계속 진행 중인 웹툰이어서 가지고 쫄 걸 말은 없고 그냥 계속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약간.(20대 여, 강○○)

(3)의 밑줄 친 ‘이젠, 이제, 쯤, 약간’ 등은 화제 연결이나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담화표지로 사용된 것이다. 보통 담화표지로 쓰일 때는 조사가 결합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담화표지에 조사가 붙을 수 없는 것은 담화표지로서의 형태가 더 이상 조사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3. 가.)에서 ‘이제’가 조사 ‘는’과 결합한 형태가 나타난다. 조사가 결합된 경우는 조사가 결합된 상태로 굳어졌다고 볼 수 있다. 원래 부사인 ‘이제’가 ‘이제는, 이젠’처럼 조사가 결합된 형태로 재구조화되었음을 의미한다. (3. 다.)는 습관적으로 ‘이제’를 사용하는 20대 남성 화자의 발화이다. ‘이제, 인제, 이젠’은 나이나 성별과 관련 없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20대 여성 화자에게서 ‘조금’의 축약형인 ‘쯤’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인데 축약된 형태의 ‘쯤’이 20회 사용되었다. 20대 남성 화자의 경우는 ‘조금’ 1회, ‘쯤’ 2회, 80대 남성 화자는 ‘조금’ 1회를 사용하였다. 20대 여성 화자는 ‘조금’을 ‘쯤’이라고 축약하여 귀엽고 여성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3.2.2. 접속부사성 담화표지

접속부사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문장에서는 접속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말할 시간 별기 등의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담화표지를 접속부사성(김미진, 2016:101) 담화표지라고 한다. 논리적인 문장 구성을 위해 문장의 접속 기능을 하는 접속부사를 많이 사용하는데 접속

부사성 담화표지의 사용 결과에 따라 집단별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80대 남	80대 여	20대 남	20대 여	비고
계	2	0	0	0	방언형
계고	2	0	0	0	
계난/겨난/겨난	15	11	0	0	
계도	0	1	0	0	
계매	1	0	0	0	
계민/겨민/경허민	7	13	0	0	
계서/ 경해서	4	0	5	2	
계신디	0	1	0	0	
젠/경	0	2	0	0	
젠디/건디/ 경헌디	1	5	0	0	
경허난	0	3	0	0	
경허명	0	1	0	0	
경해여근에	0	1	0	0	
경해영/ 경행 경해연/ 경행/계연	0	6	0	0	
경해가지고	0	0	2	0	혼합형
게가지고	0	0	3	1	
게니까	0	0	1	0	
그니까	0	0	13	5	축약형
근테	0	0	15	21	
얏튼/압튼	1	0	0	1	표준어형
그레가지고	2	0	3	17	
그래서	1	0	0	5	
그리고	1	0	0	0	
또	7	7	0	0	
한테	0	0	1	0	
해가지고	0	0	13	2	
해서	0	0	2	9	
했는데	0	0	0	1	
합계	44	51	58	64	

<표 7> 접속부사성 담화표지의 사용 빈도

접속부사성 담화표지의 사용은 남녀 간의 차이보다는 나이나 교육의 정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진다.

교육을 받지 않은 80대는 ‘게난, 게고, 게민, 경허난’과 같은 방언형 담화표지를 많이 사용하고 20대는 ‘그래가지고, 그래서’와 같은 표준어형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20대에서 ‘게서/경해서’와 같은 방언형이 간혹 발견되며, 80대의 발화에서도 ‘그래가지고, 또’와 같은 표준어형이 등장하고 있다. 즉 방언형을 사용하던 80대도 표준어의 영향으로 표준어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20대도 방언형을 사용하고 있다. 표준어형과 방언형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양쪽 집단 모두에서 보이는 하나 80대보다 20대가 더 많은 혼합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대는 표준어형을 주로 사용함과 더불어 ‘근데, 그니까’와 같은 축약형의 담화표지도 자주 사용한다. 20대의 언어습관인 단어 축약이 담화표지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가. ㄱ: (영화의) 뜻이 변질돼 버린 거야? 취지가?

나. 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후계자를 또 죽이고, 그 후계자가 죽이고, 죽이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아, 그리고 매편마다 반전이 있거든요.(20대 남, 김○○)

나. ㄱ: 그디 큰 소나무가 이서났다고 합니다.

나. 소나무마씨?

ㄱ: 예. 게서 그 소나무 아래 완 두 번차 완에 집을 지선에 살아났기 때문에 솔나무 송자 놓고 집 당자를 넣은에 송당이렌 일름이 지어진 거고.(80대 남, 김○○)

다. 게가지고, 한테, 막, 그 상태에서 또 세 명이 기절했는데 또 다른 장소로 와 있는 거예요.(20대 남, 한○○)

(4. 가.)에 등장하는 ‘그래 가지고’는 20대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의 담화표지로 화제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와 비슷한 의미로 ‘그리하여 가지

고'의 줄임말 형태로 제주도 방언에서는 '게서, 경행'의 형태로 쓰일 수 있다. (4. 나.)의 80대 남성의 발화에서 등장한 '게서'도 '그래 가지고'의 기능과 비슷한 화제 연결의 기능을 수행한다. 앞에서 제시한 소나무 이야기를 계속하여 연결하려는 의도로 사용되었다.

또한 20대는 방언형과 표준어형의 결합된 (4. 다.)의 '게가지고' 같은 혼합형도 사용한다. 20대의 담화표지 사용에 있어 혼합형이 나타나는 것은 자신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표준어와 사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방언형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3.2.3. 지시대명사성 담화표지

지시대명사성 담화표지는 지시대명사에서 기원한 것으로 '이, 그, 저'가 대표적이다. 말할 때 생각이 얼른 떠오르지 않거나 말하기 힘든 대상을 가리키는 '거시기'도 여기에 포함하여 지시대명사성 담화표지로 볼 수 있다. 말을 더듬거나 시간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지시대명사성 담화표지를 많이 사용한다. 이 담화표지의 사용에 있어서는 두 개 이상의 대명사를 중복한 '그 저, 이 저' 등의 출현도 볼 수 있다.

지시대명사는 주로 말하는 이가 듣는 이와는 거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화자와 가까이 있으면 '이', 청자에게 가까이 있으면 '그', 화자와 청자들 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를 사용한다. 이런 지시대명사가 담화표지로 사용되면 지시대명사 본래의 기능과 뜻을 잃게 된다.

- (5) 가. 계난 본향이 막 커. 그디 하르방이 경행, 저 하르방이 그디 오라근에 작명행 삼달리엔 행, 저 물 좋고 저 영아리 무신 물 좋고 무신거 헛젠 허난 안정헛젠 허주게.(80대 여, 김○○)

나. 그 웹툰 이태원 클래스라는 웹툰이 있거든요.

ㄴ: 음, 이태원 클래스?

ㄱ: 네.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나면 그 박세로, 박세로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 따라 가지고 시골로 내려가요.(20대 여, 강○○)

(5. 가.)에서는 ‘저’가 3번 사용되었는데 이때의 ‘저’는 시간 벌기의 의도로 사용되었다. (5. 나.)는 최근에 읽은 책이나 영화를 이야기해 달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웹툰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망설이면서 말을 시작하는 것이다. 또 주인공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그’라는 담화표지를 사용한 것이다.

두 개의 지시대명사성 담화표지가 중복되어 사용되는 경우는 하나의 담화표지가 발화되는 동안에 다음 말이 생각나지 않아 또 하나의 담화표지를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로서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망설임이나 시간 벌기의 기능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80대 남	80대 여	20대 남	20대 여
이	6	10	2	1
그	61	35	81	52
저	20	24	5	5
기타(거, 그런, 거시기)	11	2	1	1
합계	98	71	89	59

<표 8> 지시대명사성 담화표지의 사용 빈도

지시대명사성 담화표지는 남성 화자가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20대 남성의 ‘그’ 사용이 두드러진다. 남성 화자가 말을 더듬거나 시간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담화표지 ‘그’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지시대명사성 담화표지의 사용 빈도는 20대보다 80대에서 더 많은 사용을 보였다.

3.2.4. 의문대명사성 담화표지

의문대명사의 본래의 기능은 잘 모르는 것을 청자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의

문대명사의 형태를 지녔으나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것을 의문대명사성 담화표지로 분류하였다.

	80대 남	80대 여	20대 남	20대 여
뭐	33	7	24	21
왜	0	0	1	1
어디	0	4	0	0
무슨/무신	0	1	0	0
무신거	0	2	0	0
합계	33	14	25	22

<표 9> 의문대명사성 담화표지의 사용 빈도

의문대명사성 담화표지 사용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많은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담화 진행에서 유창하기 때문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담화 진행에서 더 많이 머뭇거리고 그 머뭇거림을 채우기 위해 담화표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의문대명사성 담화표지의 사용 빈도는 20대와 80대가 같게 나타났다. 담화표지는 한 문장 안에서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말의 진행이 끊기고 내용 전달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 혹은 심리 상태에 따라서 사용 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의문대명사성 담화표지는 한 문장에서 반복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6) 가. 나가 군대 갔다, 나가 육이오 때 갔다 왓주게. 열일곱에 중학교 곧 들어 가난 그자 험 가불엇주게. 갔다완 보니까 뭐 가난하고 뭐 더 험 건 엇고.(80대 남, 고○○)
- 나. 사랑 얘기도 물론 있지만 그 주된 뭐라 해야 돼지. 그 드라마 일단 맨 처음부터 결말, 결론 알려주고, 결말 알려주고 범인이 누구까? 그런 거라서 재밌었던 거 같아요.(20대 여, 고○○)
- 다. 그러다가 그 지연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멈추는데 게서 샬롯이 지연아 하면서 어께 두드려 보고 그 앞으로 가서 지연이 얼굴을 보는데 어 거기서

그 좀 어 뒤편 하고? 무서운 얼굴을 한 어.(20대 남, 한○○)

의문대명사성 담화표지 중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뒤편’이다. ‘뒤편’은 ‘무엇’의 준말로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6. 나, 다.)처럼 ‘뒤편’에 의문형 종결어미인 ‘-냐’, ‘-지’를 결합하거나 ‘뒤편 해야 되지’와 같은 문장의 형태도 등장한다. 짧은 한 단어를 담화표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반복해서 사용하기도 하며 문장형으로도 사용한다.

3.2.5. 조사성 담화표지

제주도 방언에서 문장이나 단어의 뒤에 붙어서 확인이나 존경의 의미를 표현하는 형태소를 첨사라고 한다. 이 중에 존칭형으로 ‘-양, -마썸, -예’가 있고 비존칭형으로 ‘-게, -이, -기’가 있다. 이들은 주로 문장종결형에 첨가되어 청자를 높여주거나 낮춰주는 기능을 한다. 제주도 방언에서 해요체는 존재하지 않으나 ‘-양, -마썸, -예’가 두루 높임인 해요체에 대응될 수 있고 ‘-게, -이, -기’는 두루 낮춤인 해체와 유사하다. 조사성 담화표지는 높임법 종결어미로 다루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조사와 결합되지 않으며 위치가 자유로운 것을 고려하여 담화표지에서 다루었다. 이들은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한 문장 안에서 여러 개가 동시에 출현할 수도 있다. 종결어미로 쓰인 ‘-요’는 여기서 제외하였다. 20대 남녀 모두는 ‘해요’체를 사용하여 조사에 응했기 때문이다.

	80대 남	80대 여	20대 남	20대 여
요	0	0	2	0
게	23	14	0	0
양	17	0	0	0
이	3	12	0	0
마썸/마썸/마썸/마썸	4	0	0	0
합계	47	26	2	0

<표 10> 조사성 담화표지의 사용 빈도

담화표지 ‘-게, -이, -기’는 비존칭의 종결을 나타내는 동시에 화자의 확신, 의지, 단정, 강조 등 화자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려는 의지를 포함한다. 확신이 있는 발화에서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려는 의지가 강한 발화에서 사용된다. 80대의 발화에서 ‘-게’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조사 상황과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조사자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7) 가. 그때알 들어 가렌 허민 하인덜 그 앞이 강 딱 세와뒤근에 몰 탁 시끈 거 헤딩 하인이 강 그디 가근에 집이 강 새서방 왓습니다 헤 가지고 여장을 드립니다게. 여장 드리곡 허민 거기서 이제 여장 거 방은에 문 앞이서 탁 놓양 그맨 것도 그대로 안 헤마씨.(80대 남, 고○○)
- 나. 근데요. 약간 저는요 그렇게 무서운 걸 막 찍을 수 있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소비자로서 딱 재밌었다는.(20대 남, 한○○)

존대의 자리에서 되묻는 형태로 쓰이는 제주도 방언의 첨사는 ‘-양, -야’이다. 그런데 표준어나 다른 지역 방언의 영향을 받은 ‘-예’의 세력이 확대되면서 ‘-양’과 ‘-야’의 발화는 점차 줄어들었다. 높임체의 경우는 ‘-양’의 쓰임이 남성 화자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7. 가.)에서처럼 ‘-양’의 사용이 80대 남성 화자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예’보다 보수적인 형태로 나이가 많은 남성 화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20대 남자의 ‘-요’의 사용은 (7. 나.)와 같이 ‘저는요’와 같이 문장 중간에 휴지를 두고 쓴 것을 담화표지로 보았다.

3.2.6. 감탄사성 담화표지

감탄사에서 기원한 담화표지로는 ‘아, 어, 예, 첩, 아니, 음, 원, 아이구’ 등이 있다. 감탄사는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초조하거나, 다급할 때, 기쁘거나, 슬프거나, 뉘우치거나, 칭찬할 때 내는 소리다. 소리를 흉내 내는 말로서가 아니라 화제의 전환을 위해 사용하거나 머뭇거릴 때 사용하는 것을 담화표지로 분류하였다.

	80대 남	80대 여	20대 남	20대 여
아	4	1	34	18
어	2	0	32	24
에	3	0	0	0
침	18	0	0	0
아니/아이	2	1	2	0
음	0	0	0	10
원	1	0	0	0
아이구	0	1	0	0
합계	30	3	68	52

<표 11> 감탄사성 담화표지의 사용 빈도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감탄사성 담화표지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20대 화자의 ‘아, 어’의 사용은 80대 화자들에 비해 두드러진다. 20대 화자는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발화를 유도하려 하고 있다.

(8) 가. 음, 그 영화가 막 임팩트 있는 영화가 아닌데 음, 그냥 좀 잔잔한 영화에
요 근데.(20대 여, 강○○)

나. 게서 그 노라미를 훑아서 나갈 때는 올레에 신부침에 갈 때 경헨, 그 침,
그 부락에 용인이 그 물을 잡주게.(80대 남, 정○○)

20대 여성 화자의 사용이 두드러진 것은 (8. 가.)의 ‘음’이다. 망설임을 나타내거나 바로 생각나지 않아 시간을 벌기 위해 사용했다. 80대 남성화자는 (8. 나.)에서 보이는 ‘침’을 사용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감정표현을 위해 감탄사로 사용되었다면 감정의 표현에 적극적인 여성 화자가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남성 화자가 더 많은 사용 빈도를 보이는 것은 감정 표현을 위해 이들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발화의 논리성이나 유창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표출된 담화표지로 사용되었기에 남성 화자가 더 많이 사용한 것이다.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실제 화자의 담화를 분석하여 제주도 방언의 담화표지 사용 양상의 특징을 사회적 변인과 형태적 분류에 따라 살펴보았다.

사회적 변인에 따른 특징으로 먼저 20대 화자가 표준어형과 축약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특징을 볼 수 있었다. 교육의 정도에 따른 차이는 표준어형과 방언형의 사용 정도로 나타난다. 교육을 받은 20대는 부분적으로 방언을 사용하는 하나 표준어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반면 교육을 받지 않은 80대는 부분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나 방언을 주로 사용하는 화자이다. 특이한 것은 담화표지 사용에 있어 표준어형과 방언형이 혼합된 형태는 20대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교육을 받은 집단인 20대에서 혼합형이 나타나는 반면 80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담화표지 사용에 있어 성별의 차이는 남성 화자가 더 많은 담화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언어의 유창성이 떨어지며, 담화 진행에서 더 많이 머뭇거린다. 그 머뭇거림을 채우기 위해 담화표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시대명사성 담화표지를 많이 사용했다.

제주도 방언의 담화표지를 품사적 기원에 따라 형태적으로 분류하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부사성 담화표지에 있어 80대는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반면 20대는 남성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남성 화자가 부사성 담화표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여성적 말하기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접속부사성 담화표지와 조사성 담화표지 사용에서는 20대의 언어 습관인 축약형을 사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접속부사성 담화표지 사용에 있어 20대가 방언과 표준어의 혼합형을 사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표준어형과 방언형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된 형태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성 담화표지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특징 중 하나인 첨사 ‘마썸, 양, 게’를 80대에서만 볼 수 있으며 20대에서는 드물게 ‘요’ 형태만 나타난다.

참고문헌

- 김미진(2015), 《제주도 방언의 여성 발화 연구》, 박사학위논문(제주대).
- 김미진(2016), <제주도 방언의 접속 부사 연구>, 《동남어문논집》 42, 동남어문학회, pp.89-111.
- 김영철(2010), <우리말 담화표지 ‘막’ 고찰>, 《국어문학》 48, 국어문학회, pp.5-22.
- 김진수·이윤희(2015), <대전 지역 담화표지 사용 양상의 화용론적 분석>, 《인문학 연구》 101, 충남대인문과학연구소, pp.67-194.
- 김향화(2003), 《한국어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계명대).
- 김혜숙(2009), <성별에 따른 ‘네’와 ‘예’의 사용과 변화양상>, 《언어연구》 25, 한국현대언어학회, pp.85-101.
- 문순덕(2003), <제주방언 반말체 첨사의 담화기능>, 《영주어문》 5, 영주어문학회, pp.71-86.
- 문순덕(2005a), <제주방언의 높임말 첨사의 담화기능-‘마씀, 양, 예’를 중심으로>, 《언어연구》 20-3, 한국현대언어학회, pp.1-17.
- 문순덕(2005b), <제주방언의 간투표현>, 《한글》 269, 한글학회, pp.161-188.
- 문순덕·김원보(2012), <제주방언 담화표지 ‘계메’ 연구>, 《언어학연구》 17-1, 한국언어연구학회, pp.27-42.
- 민현식(1997), <국어 남녀 언어의 사회언어학적 특성>, 《사회언어학》 5-2, 한국사회언어학회, pp.529-587.
- 박영순(2004), 《한국어의 사회언어학》, 한국문화사.
- 신우봉(2015), <제주방언 담화표지 ‘계메’의 운율적 특성과 담화적 기능의 상관관계>, 《어문연구》 43-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143-166.
- 심란희(2011),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담화표지 ‘그냥’의 기능연구》, 석사학위논문(연세대).
- 양창용(2009), <제주방언 ‘양’에 대한 통화, 담화론적 고찰>, 《한국언어문화》 69, 한국언어문화학회, pp.5-28.
- 양창용·김원보(2013), <제주어 ‘계’의 담화적 기능에 대한 고찰>, 《언어와 언어학》 59, 한국외대 언어연구소, pp.143-164.
- 안주호(1992), <한국어 담화표지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17, 연세대 한국어학당, pp.21-38.

- 이기갑(1995), <한국어 담화표지 ‘이제’>, 《담화와 인지》 1, 담화인지언어학회, pp.261-286.
- 이기갑(2009), <동남방언 담화표지 ‘고마’>, 《우리말연구》 25, 우리말학회, pp.41-77.
- 이기갑(2013), <제주방언의 담화표지 ‘근’과 ‘에’>, 《방언학》 17, 한국방언학회, pp. 143-167.
- 이원표(2001),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 이정애(1998), 《국어 화용표지의 연구》, 박사학위논문(전북대).
- 이혜영(1994), <담화표지 ‘글쎄’의 담화기능과 사용의미>, 《이화어문논집》 13, 이화어문학회, pp.129-150.
- 임규홍(2004), <성별에 따른 국어 담화표지 사용모습: 중고등학생 이야기 대화를 바탕으로>, 《어문학》 83, 한국어문학회, pp.93-113.
- 임규홍(2011), <경상도 방언 담화표지 ‘마’에 대한 연구>, 《배달말》 48, 배달말학회, pp.1-33.
- 전영옥(2002), <한국어 담화표지의 특징연구>, 《화법연구》 4, 한국화법학회, pp.113-145.
- 황정민(2008), <성별 담화표지어의 사용 양상 비교 연구>, 《한국 언어문화학》 5-1, 국제 한국언어문화학회 pp.347-370.

A sociolinguistic study of discourse markers in Jeju dialect

Kim Mijin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Jeju dialect speaker's language habits by studying the socio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discourse markers of Jeju dialect. Discourse markers are used to communicate effectively as one of the discourse strategies that are used to smoothly communicate the speaker's intention or mental attitude to the other party. We examined the discourse markers that Jeju dialect speakers used in actual discourse situation and examined how they differ according to sociolinguistic variables.

As subjects to survey of college students in the 20s who were born and raised in Jeju Island and people in the 80s who actually speak Jeju dialects, we verified quantitatively and analysed qualitative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use of discourse markers on the basis of actual recordings and transcrip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urvey, we confirmed the function of discourse markers used by the speakers of the Jeju dialect and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ause of each discourse markers according to their age, gender, and degree of education. In addition, we classified and arranged the discourse markers in Jeju the dialect according to their morphological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Key words: Jeju dialect, discourse markers, sociolinguistics, language habits, discourse strategies

김미진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라봉5길 26 [63283]

전자우편: mijin3228@naver.com

접 수: 2018.05.15.

수정본 접수: 2018.06.11.

게 재 확 정: 2018.06.13.